

호반 숲 따라 내 마음에 '심표' 찍고, 고즈넉한 길을 걷다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장성호 수변길-숲속길



호숫가에 데크로 만들어진 첫 번째 전망점이다. '장성호 수변길'이라 쓰인 상징물과 앉아서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의자들이 놓여있다.

완연한 봄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매화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봄에 떠나는 여정은 활력 넘친다.

오늘은 장성 수변길을 걸으려고 한다. 장성호 수변길은 광주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좋아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장성호 제방에 올라 아래쪽을 바라보니 황룡강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가고, 황룡강 주변 산자락에 농경지와 마을이 자리했다. 장성호 제방에서는 장성을 내 건물들까지도 바라보인다. 제방위에서 바라본 장성호는 언제나처럼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수는 산줄기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산줄기가 호수의 긴 물길을 감싸고 있다. 호수 뒤에서는 백양사를 품고 있는 백암산이 우뚝 서있다. 백암산과 주변 산줄기들은 호수와 어울려 수려한 풍경을 이뤘다. 산과 물이 만나 그려낸 거대한 산수화 한 폭이다.

장성호는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 상류를 막아서 생긴 인공호수다. 1976년 준공됐고, 총저수용량 8천970만, 유역면적 687㎢에 이른다. 거대한 양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 38m 높이로 제방을 쌓았고, 제방길이만 620m에 달한다.

이런 장성호 수변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이 있다. 장성호 수변길이다.

장성호 수변길은 제방 왼쪽의 '출렁길'과 오른쪽 '숲속길'로 이뤄져있다. 좌측 수변길인 '출렁길'은 옐로우출렁다리와 황금빛출렁다리를 지나게 되고, 우측 수변길인 '숲속길'은 고즈넉한 호반숲길을 따라 고즈넉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수 왼쪽 '출렁길'을 걷는다. 항상 봄비는 출렁길에 비해 숲속길은 걷는 사람이 적고 호수가 울창한 숲길을 걷게 되어 호젓한 맛이 일품이다.

오늘 우리는 장성호 오른쪽 '숲속길'을 따라 걷기로 했다. 제방 오른쪽 끝에 있는 수문을 건너니 '장성호 수변길' 안내도가 서있다.

'숲속길'은 장성호 수문 건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숲속길로 접어들자 산 중턱으로 통하는 임도와 호반을 따라 걷는 수변길이 갈린다. 숲속길은 데크길과 흙길이 번갈아가며 이어진다. 호수변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는 길이 고즈넉하고 포근하다.

호수와 산자락이 만나면서 이른 경계가 곡선으로 이어진다. 건너편 출렁길에 놓여있는 옐로우출렁다리가 손짓한다. 옐로우출렁다리는 21m 높이의 노란색 주탑을 양쪽에 세우고 현수교 형태로 줄을 매달아



장성호는 산줄기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산줄기가 호수의 긴 물길을 감싸고 있다. 호수 뒤에서는 백양사를 품고 있는 백암산이 우뚝 서있다. 백암산과 주변 산줄기들은 호수와 어울려 수려한 풍경을 이뤘다. 산과 물이 만나 그려낸 거대한 산수화 한 폭이다.



호수에 만들어진 윤슬이 파스하다. 윤슬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기는 것도 장성호 수변길-숲속길의 매력이다.

154m 길이로 만들어졌다. 옐로우출렁다리 뒤로 높지 않은 아산이 부드럽게 자리했다.

숲에서는 끈기 자란 소나무와 참나무 뿔나무 때죽나무 같은 활엽수가 사이좋게 공생한다. 호수와 접하고 있는 나무들은 물위로 가지를 뻗어 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활엽수들은 봄을 맞아 잎 티끌 준비를 마쳤다. 호수위로 나있는 데크길을 걸을 때는 물위를 걷고 있는 것 같다.

수평을 이룬 호수는 붕긋붕긋 솟은 산봉우리들과 조화를 이뤘다. 호수의 물결은 장성담이 건설되기 이전에 흐르던 황룡강 물결이 확대된 형태를 띠고 있다. 길을 걷다보면 호수를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의자가 놓여있거나 전망쉼터가 있다. 더군다나 길은 장성호 제방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제외하고는 경사가 거의 없어 부담없이 걷기에 제격이다. 반환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야 해서 끝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발걸음 돌려도 된다.

호수는 산줄기를 따라 뻗어 나왔다가 골짜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로 반복한다. 깊은 곳은 500m 이상 좁고 길쭉한 골짜기를 따라 호수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른 봄이라 호수물이 차지 않아 호반의 붉은 흙이 그대로 노출됐다. 붉은 흙과 푸른 호수는 묘한 조화를 이뤘다. 뒤돌아보면 장성호 제방이 바라보이고 호수 위에는 서쪽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반사돼 윤슬이 만들어졌다.

호숫가에 데크로 만들어진 첫 번째 전망쉼터에 도착하니 '장성호 수변길'이라 쓰인 상징물과 앉아서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의자들이 놓여있다.

이곳 쉼터에서는 호수 건너 서쪽 출렁길에 놓인 황금빛출렁다리가 눈에 잡힐 듯 가깝게 바라보인다. 황금빛출렁다리는 장성호에 설치된 두 개의 출렁다리 중 하나로 길이는 옐로우출렁다리와 같은 154m다.

백암산도 더욱 가까워졌다. 푸른 면을 이룬 호수와 수많은 곡선을 그으며 만들어진 호반의 선들이 우뚝 솟은 백암산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화가 됐다.

쉼터 의자에 앉아 장성호와 백암산이 만들어준 풍경을 감상하는 호수를 누린다. 숲길을 걸을 때는 잡다한 생각을 멈춘 무념무상이 되고, 전망이 트여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다가올 때는 예술적 감성에 흠뻑 빠져든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는 포근하고 아늑하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도 산줄기가 감싸주고 있어 호수는 잔잔하다. 장성호에는 조정경기장과 훈련장이 있다. 뛰어난 자연경관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과 파도가 적어 훈련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호수가 숲속길을 걷고 있으니 나무 사이로 밝은 햇살이 파스하게 스며든다. 기계음이나 인공적인 소리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속에서 새들이 감미롭게 노래를 한다. 숲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만나 자연음악이 된다.

호수가 물위에 세워진 두 번째 조망쉼터에 도착했다. 첫 번째 조망쉼터와 다른 모양의 포토존 설치물이 호수를 등지고 앉아보라 한다.

호수 건너편에서 황금빛출렁다리는 물론 출렁다리를 지나 만나게 되는 수성마을이 손짓한다. 수성마을을 감싸고 있는 성미산이 호수와 마을의 중심을 잡



항상 봄비는 출렁길에 비해 숲속길은 걷는 사람이 적고 호수가 울창한 숲길을 걷게 되어있어 호젓한 맛이 일품이다.



장성호는 산줄기를 따라 뻗어 나왔다가 골짜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로 반복한다. 깊은 곳은 500m 이상 좁고 길쭉한 골짜기를 따라 호수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아주고 있다.

울창한 숲의 안내를 받으며 다시 길을 걷는다. 습한 물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또 하나의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줄기를 뻗은 버드나무 아래에 넓은 데크를 깔아 많은 사람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다. 그늘진 곳이라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쉼터에서 산자락을 돌아 '장성호 수변길-숲속길'이 끝나는 마지막 데크쉼터에 도착한다.

데크 전망쉼터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망중한에 빠진다. 호수에 만들어진 윤슬이 파스하게 다가온다. 숲속길 반환점에서 호수와 함께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다가 오던 길을 따라 제방으로 되돌아간다. 울창한 숲과 잔잔한 호수가 배움을 해준다.

(장갑수·야행작가)



21m 높이의 노란색 주탑을 양쪽에 세우고 현수교 형태로 줄을 매달아 154m 길이로 만들어진 옐로우출렁다리.



황금빛출렁다리는 장성호에 설치된 두 개의 출렁다리 중 하나로 길이는 옐로우출렁다리와 같은 154m다.

※야행특거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 수변을 따라 걷는 길로, 제방 왼쪽의 '출렁길'과 오른쪽 '숲속길'로 이뤄져있다. 그중 우측 '숲속길'은 고즈넉한 호반 숲길로 조용히 사색하며 걷기 좋은 길이다.

※코스 : 장성호 제1주차장→장성호 제방→숲속길 입구→숲속길 쉼터→숲속길 마지막 쉼터(반환점)→장성호 제1주차장

※거리, 소요시간 : 11.8km, 3시간 소요

※출발지 내비게이션 주소 : 장성호 제1주차장(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164-1)